

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

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·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

-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
 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자활사업,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지원(청년저축계좌)
- 취약계층 지원
 -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지원(주간활동, 방과후활동),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,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
- 국민 체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 -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사회서비스원,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

②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
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: 건강보험 정부지원
- 건강위험요인 예방·관리
 - (예방·증진)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, 건강생활지원센터,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 - (자살예방·정신건강) 자살예방, 지역정신건강 인프라 강화, 정신질환자 치료지원
 - (감염병 대응) 국가결핵예방, 국가예방접종, 검역관리, 신종감염병 대응
-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
 -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, 중증어린이병원 기능강화
- 바이오헬스(의료데이터, 의료기기, 제약) 분야 혁신성장 투자
 - (의료데이터)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,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
 - (의료기기)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,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
 - (제약) 제약산업 육성지원
 - (사회문제 해결 R&D)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, 치매 극복 연구개발,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

3] 저출산·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

- 보육 및 돌봄체계 강화
 - 보육지원체계 개편 : 영유아보육료, 보육교직원 인건비
 - 공공어린이집 확충, 다함께돌봄사업, 아동수당
- 노인 돌봄체계 및 소득기반 확충
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치매관리체계 구축, 노인장기요양보험
 - 노인 일자리, 기초연금

1

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·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생계급여 : ('19) 37,617 (추경예산+109 포함) → ('20년 안) 43,379억원 (5,762억원, 15.3%)
- 의료급여 : ('19) 64,374 (추경예산 +459 포함) → ('20년 안) 70,038억원 (5,664억원, 8.8%)
- 자활사업 : ('19) 5,240 (추경예산 +330 포함) → ('20년 안) 6,021억원 (782억원, 14.9%)
-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지원 : 781 → ('20년 안) 1,071억원 (290억원, 37.1%)
- 국민연금 : ('19) 230,193 → ('20년 안) 270,034억원 (39,841억원, 17.3%)

□ 【소득 보장 강화】 저소득층 소득 개선 지원

- (생계급여)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,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30% 신규 적용,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(현 4.17% → 2.08%),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* 등
 - * 재산의 소득환산 시 제외하는 '기본재산공제액' 및 소득환산율이 낮은 '주거용재산'의 한도액 인상
- (의료급여)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(56,230→65,038억원, 15.7% 증가),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및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 강화 등
- (자활사업)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, 탈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일자리 5만 8천개 운영

- (탈수급 지원) 주거·교육급여·차상위 청년(만 15~39세)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시행
* 본인 저축액 10만원 당 30만원 매칭하여 3년간 1,440만원 형성 가능
- (국민연금) 국민연금 수급자(518→561만 명) 증가를 반영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장애인활동지원 : ('19) 10,149(추경예산 +114 포함) → ('20년 안) 12,752억원 (2,603억원, 25.6%)
- 발달장애인지원 : ('19) 427 → ('20년 안) 855억원 (428억원, 100.1%)
- 장애인일자리 : ('19) 1,208 → ('20년 안) 1,415억원 (207억 원, 17.1%)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: ('19) 99억원 → ('20년 안) 218억원 (119억원, 120.2%)
- 아동권리보장원 운영·지원 : ('19) 126 → ('20년 안) 190억원 (64억원, 51.0%)

□ **【취약계층 지원】** 장애인,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

- (장애인활동지원) 서비스 이용자(81→90천명) 확대, 1인당 월 평균 급여량 (109→127시간) 증가,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 감소자에 대한 보전 조치(3만명, +10시간), 최저임금 인상 고려 단가 인상(12,960→13,350원)
- (발달장애인지원) 주간활동(2.5→4천명), 방과후활동 대상자(4→7천명) 확대 및 시간당 단가 인상(12,960→13,350원)
- (장애인일자리)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수 지속 확대 ('19년 2만 → '20년 2만 2,500개)
* ('18년) 1.75만 → ('19년) 2만 → ('20년) 2.25만 → ('21년) 2.5만(예정) → ('22년) 2.75만(예정)
- (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)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(4,920명→ 7,820명, 최대 지급기간 3년)
- (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) 아동학대, 입양, 가정위탁, 실종 등 기존 민간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
* 아동복지법 개정('18.12)에 따라 '아동권리보장원' 출범('19. 7)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: ('19) 409 → ('20년 안) 1,189억원(780억원, 190.7%)
-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: ('19) 96(추경예산+32 포함) → ('20년 안) 177억원 (81억원, 84%)
- 사회서비스원 설립 ('19) 60 → ('20년 안) 121억원 (61억원, 102.0%)

□ **【복지서비스 전달체계】** 복지사각지대 개선 및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

- (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)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
 -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'복지 멤버십(가칭)'을 도입하고,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지원
 - * 마스터플랜 수립('19.4~11) → 시스템 분석·설계('19.12~'20.9) → 시스템 개발('20.10~'21.9) → 차세대 시스템 단계적 개통('21.9~)
- (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)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 시행하고, 대상(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자)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모델 현장 구축
- (사회서비스원)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,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7개 신설('19년 4개소→'20년 11개소)
- (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) 국고지원시설* 인건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수준 목표로 단계적 향상 (+38,457백만원, 4.7% 증가)
 - *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시설, 지역자활센터, 노인양로시설 등
 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대인력 지원 확대(+795명, +18,378백만원 순증)를 통한 법정근로시간(주52시간) 보장,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

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건강보험 정부지원 : ('19) 78,732 → ('20년 안) 89,627억원 (10,895억원, 13.8%)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: ('19) 669 → ('20년 안) 675억원 (6억원, 0.9%)
-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: ('19) 44 → ('20년 안) 85억원 (41억원, 94.6%)
-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: ('19) 25 → ('20년 안) 64억원 (39억원, 156.0%)
-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: ('19) 729 → ('20년 안) 974억원 (245억원, 33.7%)
-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: ('19) 9 → ('20년 안) 52억원 (43억원, 462.5%)

□ 【건강 증진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질병 예방·정신건강 투자

- (건강보험 정부지원*)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 ('19년 13.6%, 78,732억원 → '20년 14.0%, 89,627억원)
 - *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
- (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)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, 건강관리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(100→130개소)
- (건강생활지원센터)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(75 → 95개소)
 - *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연계·협력,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거점 기능 수행
- (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*) 기존 보건사업 유형별,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 제고
 - * '20~'22년 단계적 구축, '20년에는 정보시스템 재구조화 및 전면 재구축을 위한 분석·설계 추진
- (자살예방)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(63개소 → 88개소), 기초 지자체(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)자살예방 담당 인력 확충(207명)

- (지역정신건강 인프라 강화)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580명 증원 ('17~'19년 790명 → '20년 1,370명),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* 확대(1→ 6개 광역지자체),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** 설치(34팀, 팀당 6명)

*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-치료, 자살 예방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·자율적으로 제공

** 정신과적 응급·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·경찰·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,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

- (정신질환자 치료 지원)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(1,351백만원, 15,000명),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(634백만원, 5,000명), 응급입원 비용 지원(896백만원, 5,000명),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(1,351백만원, 15,000명)

* '중증정신질환자 보호·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' 수립(5.15)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국가결핵예방 : ('19) 447 → ('20년 안) 464억원 (17억원, 3.8%)
- 국가예방접종실시 : ('19) 3,284 → ('20년 안) 3,352억원 (69억원, 2.1%)
- 검역관리 : ('19) 93 → ('20년 안) 100억원 (7억원, 7.1%)
-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: ('19) 293 → ('20년 안) 438억원 (145억원, 49.4%)

□ **【감염병 대응】** 결핵 관리체계 강화 및 예방접종, 검역관리, 신종 감염병 대응 투자

- (국가결핵예방) 다제내성결핵 환자 1:1 전담관리 체계 강화(전담요원 '19년 517명/144억원 → '20년 965명/190억원), 노인·노숙인·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('19년 5.6억원 → '20년 37억원),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('19년 37억원 → '20년 45억원)

- (국가예방접종실시)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4가 백신 지원*, A형간염 고위험군(20~40대 만성간질환자 등) 예방 접종 신규 지원

* (대상자) 만 6개월~12세 어린이, 임신부, 만 65세 이상 어르신 1,412만명

- (검역관리)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 구축('19년 22대/4.5억원 → '20년 28대/14억원),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('19년 5.5억원 → '20년 7.5억원)
 - * 자동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밀접접촉자 구분, 지자체 통보로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
- (신종감염병 대응 대책) 메르스 등 신종·재출현감염병 대유행 대비 국가비축물자(항바이러스제, 개인보호구) 확보('19년 250억원 → '20년 398억원)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: ('19) 1,134 → ('20년 안) 1,264억원 (130억원, 11.4%)
-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: 신규 → ('20년 안) 25억원 (순증)
-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: ('19) 193 → ('20년 안) 206억원 (13억원, 6.9%)

□ **【공공의료자원】**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중증 소아환자 지원

- (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)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장 예산 확대(923억→1,026억), 중증·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(권역 10→12개, 지역 15개소(신규))
 -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(7→12개소)
- (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)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 설치(1개소)
 - * 24시간 간호·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 대한 돌봄·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 할 수 있도록 중증 소아환자 요양병동 설치 지원
- (응급의료 이송체계) 닥터헬기 대형화*(중형 → 대형, 경기도 지역) 및 시범사업**(24시간 운항, 구조활동병행)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(13.3억원)
 - * 운항반경 확대·이송가능 환자 수 증가, ** 야간 및 착륙 불가능지역 발생환자 이송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(복지·과기·산업) : 신규 → ('20년 안) 150억
-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: 신규 → ('20년 안) 93억원 (순증)
-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(R&D) : 신규 → ('20년 안) 약302억원 (순증)
-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·선도기술 개발(R&D) : 신규 → ('20년 안) 77억원 (순증)
- 제약산업 육성지원 : ('19) 126억원 → ('20년 안) 153억원 (27억원, 22%)
-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(R&D) : 신규 → ('20년 안) 255억원 (순증)

□ **【바이오헬스】**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마련 및 제약·의료기기·화장품산업 중점 지원

○ **(데이터 플랫폼 마련) 바이오헬스 기술혁신**을 위한 유전체·의료임상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*을 구축하여, 질병극복·산업발전 기반 마련

- *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(복지·과기·산업) : 신규 → ('20년 안) 150억(순증)
-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: 신규 → ('20년 안) 93억(순증)

○ **(제약산업 육성) 4차 산업혁명 기술**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, 제약·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(한국형 NIBRT*) 지원** 확대

- * NIBRT(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) : 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
- ** 「제약산업 육성지원」 인공지능(AI) 신약개발 교육·홍보 ('19) 1.6억원 → ('20년 안) 12.7억원,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지정·운영 6.4억원(신규)

○ **(의료기기산업 육성) 범부처(복지, 과기, 산업부 등) 합동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*** 및 의료기기 시장진출·신뢰성 확보 등 육성 지원

- * 「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(R&D)」 302억원(신규)
- **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: ('19) 47 → ('20년 안) 86억원(+39억원, 82.4%)

○ **(화장품산업 육성)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소재 국산화·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지원**

- * 피부과학응용소재·선도기술개발(R&D) 77.4억원(신규)

- (사회문제 해결 R&D) 감염병, 치매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
 -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 - * '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(255억원), 치매극복 연구개발(30억) 신규 사업 편성
 - *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(R&D)(48억원) 신규

3

저출산·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영유아보육료 지원 : ('19) 34,053 → ('20년 안) 34,056억원 (3억원, 0.0%)
- 보육교직원 인건비 : ('19) 11,868 → ('20년 안) 13,781억원 (1,912억원, 16.1%)
- 다함께 돌봄 : ('19) 106 → ('20년 안) 338억원 (232억원, 218.2%)
- 어린이집 확충 : ('19) 688 → ('20년 안) 748억원 (60억원, 8.7%)
- 아동수당 지급 : ('19) 21,627 → ('20년 안) 22,833억원 (1,205억원, 5.6%)

□ 【보육돌봄】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

- (영유아보육료) 보육지원체계 개편('20.3월)에 따른 연장 보육료 반영 (0~2세 420억원, 3~5세 219억원), 보육료 인상('19년 종일반 대비 3.0%)
- (보육교직원 인건비)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·연장보육 교사 5만 2천명('19년 대비 +1만 2천명) 및 대체교사 3,436명(+700명) 배치
- (다함께돌봄 사업) 다함께돌봄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(누적 167→717개소), 생활 SOC 복합화 시설 지원(20백만원), 센터 운영비 지원(개소당 월 30만원)
- (어린이집 확충)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
 - *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의무화('19.9~)

- (아동수당)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('19.9월부터 시행)
 - * (경과) '18. 9월, 소득재산 90%이하 만 6세 미만 → '19.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(1~3월분 소급) → '19. 9월,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

< 주요 사업 편성현황 >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: ('19) 2,458 → ('20년 안) 3,728억원 (1,270억원, 51.7%)
- 치매관리체계구축 : ('19) 2,364 → ('20년 안) 2,113억원 (△251억원, △10.6%)
- 기초연금 : ('19) 114,952 → ('20년 안) 131,765억원 (16,813억원, 14.6%)
- 노인일자리 : ('19) 9,228 (추경예산 +1,008 포함) → ('20년 안) 11,991억원 (2,763억원, 29.9%)

□ **【노인 돌봄·소득 개선】 노인층의 소득 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 강화**

- (노인맞춤돌봄서비스)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및 돌봄규모 확대 (35→45만명),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맞춤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, 서비스 내용 다양화,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
- (치매관리체계구축)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,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확충(7개소), 치매공공후견지원(256명)
 - *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일부를 공무원으로 확충함에 따라 인건비 일부 감액 편성
- (기초연금) 소득하위 20→40%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 지급,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 변경 ('20년 4월 → '20년 1월,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)
- (노인일자리) 신노년세대 맞춤형 사회서비스형(2→3.7만개)일자리 및 공익활동형 (47만→54.3만) 등 일자리 13만개 확대(61→74만개)* 통한 노년기 소득안전망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 - * 노인일자리 수 : 61만개('19년 본예산), 3만개 추가('19년 추경예산)